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 年 8 月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학위논문

# 직업전문학교 위탁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권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박 기 철

# 직업전문학교 위탁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rse Map for the Entrusted  
Students in the Job Professional Institute  
- Students in GWANGJU Provincial Area -

2009年 8 月 25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박 기 철

# 직업전문학교 위탁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권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강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9年 4 月 24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박 기 철

박기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광 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강 현    인

2009 年    6 月    12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목차 .....	i
표 목차 .....	iii
Abstract .....	iv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 범위와 제한점 .....	3
제2장. 이론적 배경 .....	4
제1절. 비진학 청소년 진로지도의 이론적 고찰 .....	4
1. 진로지도의 정의 .....	4
2. 진로지도의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 .....	12
3. 우리나라 진로지도의 현실 .....	15
4. 올바른 진로지도의 방향 .....	17
제2절. 청소년의 이론적 배경과 직업훈련 고찰 .....	19
1. 청소년의 개념 .....	19
2. 청소년의 발달특성 .....	20
3. 직업훈련의 특성 .....	28
4. 위탁훈련 기관 .....	30
제3장. 연구의 방법 .....	36
1. 연구 방법 .....	36
2. 조사 대상 .....	36
3. 조사 방법 .....	36
4. 직업전문학교 일반계 고교 위탁생용 설문지 주요내용 .....	37
제4장. 결과 분석 .....	38
제5장. 결 론 .....	49
참고문헌 .....	51
부록 <직업전문학교 일반계 고교 위탁생용 설문지> .....	52

## 표 목 차

<표 1>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	15
<표 2> 고등학교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	16
<표 3>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분야 .....	31
<표 4>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36
<표 5> 진로 선택 동기.....	38
<표 6> 정보인식 여부 .....	39
<표 7> 진로 선택 시 영향을 준 요인.....	39
<표 8> 주변인에게 추천 여부 .....	40
<표 9> 현재 자신의 최대고민.....	40
<표 10>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여부 .....	41
<표 11>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41
<표 12> 교육과정에 대해 느낀 점 .....	41
<표 13> 진학을 반대했던 이유 .....	42
<표 14>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여부 .....	42
<표 15>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43
<표 16>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 할 사항 .....	43
<표 17> 학생이 원하는 직업 .....	44
<표 18> 부모가 원하는 직업... .....	44
<표 19>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 .....	45
<표 20> 원하는 상급학교교육 .....	45
<표 21>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이유.....	46
<표 22> 진학하고 싶은 원인.....	46
<표 23> 대학진학·취업 여부는 누구와 상담 했나 여부 .....	47
<표 24> 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정보 만족도.....	47
<표 25>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지도.....	48
<표 26>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법.....	48

# ABSTRACT

## A Study on the course map for the Entrusted Students in the Job Professional Institute.

- Students in GWANGJU Provincial Area -

Ki-Chul Park

Advisor: Prof. Kang-Hyeon Rhee Ph.D.

Major in Electricity,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t the teenagers days, compared with their rapid physical growth, their ideas are still immature, so it is a burden that many juvenile have to acclimate themselves to a new environment before finding what is their sense of value and what is the goal of life.

To the point of study, as we research and analyze on the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al system which is carried out the teenagers who do not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 and what is the problems of students who is studying at the job educational school, we would like to find what is the best solution how to teach these juveniles.

This paper contemplates the efficient career guidance system, which is obtained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regarding stud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 who experience much trouble and confusion about their career and view of vocation.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고도로 발전하는 산업기술과 과학기술과 문명의 변화로 현대사회의 직업의 형태는 점점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산업사회의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생활 중에서도 장래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직업과정 위탁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개성과 적성, 흥미, 욕구, 환경에 알맞은 직업을 계획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추후 그들이 직장인으로서 보람을 찾고 더불어 알찬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비록 소수 지역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산업사회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업인을 육성하고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며 기능을 연마하여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은, 1990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고교 교육체제 개혁'에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계 고등학교(기존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등)의 수용능력 확대 조치와 더불어 시작 되었으며, 이 후 1996년 교육개혁 방안(Ⅱ) 중 '신 직업교육 체제 수립'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훈련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운영되어 왔다.<sup>1)</sup> 그동안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을 일반계 고등학교 자체 직업반이나 전문계 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직업 및 산업학교,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각종 사설학원 및 인정 직업 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형태로 직업훈련을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직업훈련과정의 위탁훈련 운영자체가 학교 내의 진학위주의 교육풍토, 직업훈련 위탁생들의 열등의식, 학급편성, 시설, 교사 등의 문제로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다 할 발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비진학 학생 수에 있어서도 1995년을 정점으로 (106,269명)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 50,808명에 이르고 있으며,<sup>2)</sup> 이러한 감소추세는 자연적인 학생 수 감소, 대학 입시정책, 중등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 등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

1) 교육인적자원부(2002),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2)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한 대책으로 운영의 질적 내실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내적인 문제점으로 매년 중도 탈락은 동일한 목적의 다른 교육훈련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격증 취득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업과정 수료 후 취업보다는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과정 희망자 감소, 적성 및 능력, 소질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선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 등이 산재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수의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 없이 이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근본적 요인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진학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계열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으로써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만 집중된 국가의 균형적 인력수급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 및 조기 직업 교육을 시행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착실한 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생 직업인으로서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는 직업과정의 활성화는 더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더 많은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요건은 이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과 교육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 직업전문학교의 (재)H직업전문학교 일반계고교 위탁생들을 대상으로 비진학 청소년들의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적합한 진로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매년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비진학 청소년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 일정한 직업능력을 갖추어 졸업 후 견실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적어도 대학진학 청소년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현재 비진학 청소년들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과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의식과 직업관,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들에 대한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진로지도 방법을 개선 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과 교육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 중에서 노동부 인정 직업전문학교 중 노동부의 평가가 실시된 10년 동안 연속하여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재)H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여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적합한 진로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특징, 진로지도의 이론적 배경,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살펴보고, 일반계고교 위탁생들이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문지를 분석하여 올바른 진로지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방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범위는 전국에 소재한 직업전문학교가 아닌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간직업전문학교 중에서도 (재)H직업전문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업전문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생들의 설문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결론 또한 그 설문지와 내용에 국한하였다.

셋째, 위탁중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므로 일반계 고등학생이나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들과의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일부인 직업전문학교 위탁생들의 환경, 학교생활, 의식분석 및 직업관으로 제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조사 도구는 선행된 연구 논문들을 참작하여 연구자가 자작 한 것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객관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비진학 청소년 진로지도의 이론적 고찰

#### 1. 진로지도의 정의

한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듯 중요한 진로결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탐색이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성적만을 근거로 진로를 결정한 후 나중에 가서야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즉흥적인 진로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올바른 진로 선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로지도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한 개인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보다 더 밀접히 관련되고 공헌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진로지도는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며, 직업 적성교육이다.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의식하는 인간교육이며 합리적인 직업 준비교육이다. 또한 진학지도와 직업지도를 포함하는 진로지도의 상위개념에 속한다. 즉, 학생 개인의 잠재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흥미와 적성, 능력과 인성, 신체적 조건, 환경에 알맞은 진학 및 직업과정을 인식·탐색·준비과정을 통하여 진학 및 직업선택을 현명하게 적용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개인의 장래생활을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롭게 지도해 줌으로써 선택한 진학 및 취업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주어진 환경에 적극 적용하여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저마다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다.<sup>3)</sup>

효율적인 진로지도는 개인적으로 생애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낭비 없는 인력의 개발을 도모하고, 가정적으로 만족한 삶과 행복한 인생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며, 사회적으로 산학협동이 증진되고,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인력자원의 균형과 효율성을 최대한 이룩할 수 있다. 이로써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전인교육이 실천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

3) 김충기,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1995, p.25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잘 적응하여 생산성을 도모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자기실현에 이르게 될 것이다.<sup>4)</sup>

## (1) 진로지도의 목적 및 내용

### (가) 진로지도 목적

진로지도의 목적은 변화와 발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의 주체로서 현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탐색,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개발시켜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선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해 주는 것이 진로지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한 개인,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게 하고, 나아가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여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꿈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어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진로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목표는 다음과 같다.<sup>5)</sup>

① 자아특성의 이해와 개발 ; 진로지도는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태도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또는 취미활동이나 학문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들 요소는 성패를 좌우 하는 결정적 요인들이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활동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②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 현대 산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직업세계의 다면적 특징, 직업세계의 구조, 변화하는 직업의 요구조건과 필요한 기술과의 관련, 고용경향 등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진로발달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③ 일과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인에 대한 존경심을 발전시키고, 가치 있고 지속적인 사회제도로서의 일과 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4)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생각여부」, 2000, p.5

5) 진로교육학회, 1999, p.26-29

형성시킨다는 것은 진로지도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다. 이것은 일과 직업에 대한 일종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직업관 또는 진로관으로 발전되며, 장래의 진로선택 및 직업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의사결정 능력 ; 진로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자기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조직·해석하며 자문과 상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인간관계 기술 ; 진로지도는 진로와 관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에서 협동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며,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 간의 협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진로지도에서 중요한 목표가 된다.

⑥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 ; 진로지도에서는 직업과 일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과 직업을 통해 돈을 벌며,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위하여 그 돈이 귀중하게 소비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생산자로서 또 소비자로서 직업생활을 하며, 이러한 직업생활이 개인적·가정적·사회적·국가적 경제생활에 관련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⑦ 일과 직업의 교육적 측면 이해 ; 진로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과 일의 세계가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가 학습의 장인 동시에 장래 진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하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생애를 통한 학습과 일과의 관계를 이해시켜야 한다.

⑧ 진로 계획 ;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장기적 안목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과 진로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일생을 통하여 진로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진로지도의 내용

진로지도는 계속되는 과정이며, 도와주는 활동이고, 개인이 직업적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 및 산업의 구조를 급속히 빠른 템포로 발전시켰다. 직업세계의 변화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내용 및 체계 역시 이에 대응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해야 할 수 없이 쏟아지는 각종 직업정보를 접해야 하고 적



절한 활동방안과 실천을 이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진로지도의 내용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며, 진로지도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진로지도의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진로지도의 선구자인 Parsons는 그의 저서 『직업의 선택』 (choosing a vocation, 1909)에서 직업지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sup>

- ① 자신의 능력, 흥미 등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인식하는 일
- ② 직업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
- ③ 직업의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진로지도를 초등학교 수준까지 인식, 탐색, 준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인식단계(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직업의 존재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가르친다. 탐색단계(중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잠정적 진로계획을 수집하며, 준비단계(고등학교)에서는 준비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취업,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되어있다.<sup>7)</sup>

그러므로 진로지도는 학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 추진되어 진학 및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적성, 진단, 훈련 등의 내용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즉, 그들이 스스로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에 따른 진학 및 직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장차 적응, 발전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sup>8)</sup>

## (2) 진로지도의 의의

진로지도(career guidance)는 초기에는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란 용어로 사용되었고 직업교육과 그 개념이 구분되었다. 특히 초기의 직업지도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기 때문에 직업 교육자들은 진로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즉, 그들은 직업을 위한 준비만 잘 된다면 직업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로지도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직업 교육자들이 이 분야에 참가하게 되고, 올바른 진로지도 없이는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사실상 직업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그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교육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직업교육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에게도

6) 이정근,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p.18

7) 한국교육개발원, 「진로교육자료」, 정민사, 1982, p.12

8) 고용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4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있어서 진로지도는 대단히 중요하다.<sup>9)</sup>

### (3) 진로지도의 필요성

진로지도는 합리적 직업선택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 인성, 가치관, 신체적 조건, 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생동안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 분담, 사회적 봉사 그리고 자기실현의 길로 이끄는 직업 적성교육이며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다.<sup>10)</sup>

경제 활동과 산업구조가 고도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을 전담하는 학교교육의 비중을 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sup>11)</sup>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에서의 기술의 급속적인 변화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산업발달에 따라 산업인력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와 변화에 적응하는 진로지도가 요구된다.

셋째, 가정이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더욱 요청된다.

넷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잠재능력과 일의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계속 변화되어가고 있는 교육제도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직업교육에 자신의 교육기회를 어떻게 선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는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여섯째,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곱째, 일에 대한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현대사회에 직업세계의 고도의 효율성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직업인들에게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긴장의 결과가 가져오

9) 이무근,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1999, p.283

10) 김순희,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지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4

11) 김용혁, 「상업계고교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p.135-136



는 개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자신 및 직업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며, 직업에 대한 적합한 태도형성을 위해 직업 진로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sup>12)</sup>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때 직업 진로지도의 필요성은 전인교육과 생애교육을 지향하고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신장됨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화를 꾀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공헌을 유도시키고 직접적으로는 변화가 가속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 (4)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방법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의 방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진로지도의 목표, 지도의 내용, 지도대상의 특성, 내담자 호소문제의 성격, 학교의 환경적 여건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법이 혼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장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들에 초점을 두어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교과학습을 통한 진로지도 ;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교과 학습으로 채워진다. 물론 특별활동이나 학급활동 등이 있기는 하지만 교과지도 시간을 제외하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로지도를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과지도 시간을 이용하여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교과담당 교사들이 해당교과를 그 자체의 학문체계로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진로지도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 및 직업의 문제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진로지도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 및 직업의 문제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교과를 보다 의미 있고 흥미 있게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일이 물론 쉽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우선은 각 교과담당 교사들이 진로지도의 관점에서 교과지도를 할 필요성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

12) 김종철, 「기능의 교육」, 서울: 배영사, p.87

13)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생각여부」, 2000, p.20

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전략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 학급관리를 통한 진로지도 ; 한 학급을 단위로 볼 때 교과지도 시간 이외에 학생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담임교사이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자기의 재량에 의해서 학급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조회, 종례, 학급회의, 자율학습 시간 등이 주어져 있기도 하다. 담임교사가 학급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는 매일 갖게 되는 조회시간이나 종례시간 등 짧은 만남의 시간 동안이지만 이때 기본적인 전달이 끝나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인상 깊은 예화를 들려주는 일, 관련된 인터넷 웹사이트나 PC통신의 메뉴를 알려주는 일 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둘째, 담임교사는 1시간 이상정도 할애되는 시간(예컨대 자율학습시간, 특별활동시간 등)을 통하여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집단상담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급적이면 집단상담의 회기를 5~6회 정도로 단축하도록 하고, 인원도 최대한 늘려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담임교사 버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담임교사는 교실의 환경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에 의해서 진로지도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급의 게시판 등에 진로유형이나 혹은 특정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1주일 단위로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진로지도 내용을 모듈화 하여 언제나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다) 학교행사를 통한 진로지도 ; 학교행사를 통한 진로지도는 진로지도의 단위를 한 학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학교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행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진로지도의 날’ 행사를 들 수 있다. ‘진로지도의 날’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자기이해와 각종 직업에 대

한 이해도를 높여 현명한 진로를 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때 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선배와의 대화, 직업인 초청 강연, 영상자료 상영 등이 있다.

둘째는 ‘진로주간’ 행사이다. 한 학기에 1회 정도 진로주간을 설정하고 관심 있는 대학과 직장을 방문하여 직접 알고 싶은 내용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학을 방문할 경우 대학설립 목적, 설치된 학교, 교육과정, 교수진, 시설, 졸업 후의 진로 상황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직장을 방문할 때에는 취업에 필요한 조건, 취업 후의 업무성격, 작업환경, 보수, 사용하는 기자재와 프로그램, 장래의 직업전망, 직업의 보람과 직원들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도한다.

이러한 행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평가회를 개최하여 이 행사가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으며, 계속 발전시킬 사항은 무엇인가를 논의하여 다음 행사를 계획할 때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14)</sup>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직업교육 또는 직업지도를 탈피하여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보다 폭넓게 공헌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0년대 이후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또는 진로지도(career guidance)란 말이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또는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란 말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직업적 요구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직업교육 또는 직업지도는 일반교양 교육의 일부로서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고조되게 되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생 일대의 선택 문제이며, 일생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로란 개인의 직업생활 그리고 퇴직 후 생활까지를 포함한 인생의 전반적인 주기에 걸친 주요 경력의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렇듯 경력의 과정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퇴직자

14)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학교진로상담」, p.37-40

로서 살아가는 가족생활, 오락생활, 시민생활 등 인생의 주요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직업적 진로의 결정문제는 사실상 이러한 여타의 모든 문제를 관련시키지 않고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로지도에서도 이러한 모든 인생문제를 포괄하여 인생전반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 소질, 태도, 가치관을 계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 교육의 전체 프로그램을 바꾸어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지도는 모든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통합된 교육적 노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 2. 진로지도의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시대이고 평생학습 사회이다. 직업 세계도 더욱 다양화·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흥미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생산적인 직업인으로서 일을 수행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지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 교육의 방향으로서 대두된 진로지도를 7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 중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학교 교육이 개인의 진로탐색과 준비, 그리고 합리적인 진로 선택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7차 교육 과정은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이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진로 교육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일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꾀하기 위한 진로탐색과 개척 능력을 갖춘 인간의 양성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흔히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지도는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면 이를 기초로 일의 세계가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든지,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 된다.’는 식의 암시도 문제이다. 이는 개개인에게 적합한 직업

이 있다거나 개인이 그에 맞는 능력만 갖추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진로가 꼭 흥미, 적성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른들은 경험하고 있다. 수많은 불확실성과 가변성, 돌발 변수가 삶의 과정에 얽연히 존재한다. 또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고 하여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개인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맞는 직업의 폭도 넓고 성공적인 직업 수행 유형도 다양하다. 게다가 급격한 사회변화는 여러 번의 직업 전환을 요구한다.

진로지도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가 매우중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가지게 되는 직업은 이후에 가지게 되는 직업에 고정되거나, 대학 진학 시 학과 선택은 장래의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여러 방향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육 문제들은 올바른 진로지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람직한 진로지도는 무엇보다도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아를 실현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의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디지털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기의 진로지도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학교 현장의 진로지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진로지도이며 학교는 이러한 진로지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합리적으로 구현되는 교육 현장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다.

가. 국가·사회적인 측면의 중요성 ;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진로지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즉 세계화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없어진 무한경쟁 체제의 돌입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가는 개인에게 직업과 진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미국, 영

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국가 인적자원의 질 제고에 두고 이를 위해 국민 각 개인의 생애진로개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통합 진로정보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하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생산·수집·가공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로정보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전달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 학부모 측면의 중요성 ; 학부모측면에서 자녀에게 일생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가정에서 애정 어린 진로지도와 상담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하며 자기를 바르게 알도록 인식시켜야한다. 한편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녀의 심리적 특성, 흥미, 능력, 적성,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로 올바른 진로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일의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한 자아실현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지나친 기대나 편견을 버려야하며 ‘건전한 가치관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따뜻한 지도가 필요하다.

다. 개인적인 측면의 중요성 ; 최근의 다양한 언론보도와 신조어들(이태백, 프리트족, 니트족, 캥거루족 등)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특성과 미래세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현장에서의 진로지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 ‘평생학습사회’로 대변되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는 기존 인력구조의 재편과 직업을 영위하는 개인들에게 현재와는 다른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제 더 이상 평생직장이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제는 자신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색이 현대사회를 영위하기 위해 필

요한 능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앞으로 진로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 진로지도의 현실

#### 가. 학교 진로지도의 현실

(1). 학부모 위주의 진로결정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능력이나 성격, 적성, 흥미 등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려하고 있다.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어머니라는 응답이 (60.7%)로 다음은 아버지(39.6%), 학교선생님(33.6%), 친구(31.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응답이 높아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님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구분 \ 순위	1	2	3	4	5	비고
대상	어머니	아버지	학교선생님	친구, 선배	학원/과외선생님	복수응답
비율	60.7%	39.6%	33.6%	31.6%	8.7%	

자료 : 한국코카콜라& 코리아리서치 (2005)

(2).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학벌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 졸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길만이 출세하는 길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 적성, 흥미, 취미를 고려한 전공을 정하기보다는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학력 실업자를 지속적으로 양산시키는 문제를 낳는 것이다.

<표 2>에서 살펴보면 2006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87.5%이며 전문계 진학률은 68.6%로 나타났다.



<표 2>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및 상급학교 진학률 (단위:명)

연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진학률(%)
일반계 고교	1995	390,520	284,251	72.8
	2000	473,665	397,641	83.9
	2006	405,445	354,647	87.5
전문계 고교	1995	259,133	49,699	19.2
	2000	291,047	122,170	42.0
	2006	162,600	111,601	68.6
자료 : 교육통계 편람 (2006)				

(3).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주1회 진로지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과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려워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다. 입시위주의 학습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특히 가정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학습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4). 왜곡된 직업의식 ;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출세 지향적인 부정적 가치관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을 갖는 목적으로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학교에서 직업지도는 일 자체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여 일을 선택한 동기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과 직업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편견이 심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기보다는 인기 학과나 인기 직업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5).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부족 ;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일, 즉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직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능률적으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사회변화의 빠른 속도에 비해 학교 내 진로지도 담당자의 새로운 정보 획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수기회나 관심 있는 교사의 연구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sup>15)</sup>

#### 4. 올바른 진로지도의 방향

**가. 국가적 차원의 진로지도** - 첫째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 자질에 맞는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생각에 심사숙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이나 인성교육에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회에서는 방황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그들의 정서적 불안 상태를 해소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이며 청소년들은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며 방황하며,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 들은 일탈하기 쉬우며 학교의 주변으로 밀려나서 그 주위를 맴돌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 적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 시켜 주는 것이 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본다.

**나.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 전문적인 상담교사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업전문학교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상담교사라 해서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이미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서 상담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

15) 서울특별시교육청(2006), 2006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교재 진로교육 내실화활성화

다.

상담교사란 비진학 청소년들 개개인의 고민과 이성문제, 학업문제, 진로지도 등을 상담하며 더 나아가 한층 발전된 올바른 인격 형성을 통한 진로, 직업 문제 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를 말한다. 상담교사가 있으면 학생들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학교를 맴도는 학생들도 잘 지도 하고 상담하여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담교사를 직업전문학교에 많은 인원을 충원하여 교사 당 그 학생 수가 적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만 원만하고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가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인용구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교육적 역할이 매우 중요 하지만 시대적인 여건상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의 교육이 매우 부실 해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부정 못하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비진학 청소년의 가정적 요인을 경제적인 요인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했으나 최근의 상황은 가정불화가 더욱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일차적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돌보아야 하며 이차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정 내에서의 진로지도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갈수록 부모들의 교육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더욱 더 중요성이 강조 되는 것은 가정 내의 교육 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구도 쉽게 반론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것은 가정 내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은 사회에 진출과 학교 내에서, 대인간의 인격형성 등에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2절. 청소년의 이론적 배경과 직업훈련 고찰

### 1. 청소년의 개념

실제로 청소년의 시기와 범위는 사회에 따라, 청소년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정의에 있어서도 민법, 소년법, 병역법 및 근로기준법 등이 다양한 연령을 청소년의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신체적인 발달, 자연적인 연령 또는 학교제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시기로 볼 때 청소년기는 초경의 경험, 성장, 신체적 성숙, 결혼,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독립, 정서적, 지적 성숙 등의 특징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기로 본다는 생물학적 구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기는 성인의 행동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에 있는 자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그 연령은 14세에서 25세까지로 본다는 견해나, 청소년기란 인간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정체의식(Identity)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의식과 현재의 자아 사이에 계속성과 동일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됨으로써 새로운 동일체의식을 형성해야 하는 현실적 구분에는 상당히 다양한 기분이 제시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회가 고학력을 요구함에 따라 성인역할을 담당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에서 청소년기를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을 옳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발달 단계의 과정이 개인에 따라, 사회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 이라는 시기와 단계를 확일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이 청소년기의 시기와 그리고 개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며, 시대의 변천과 문명의 발달, 사회·문화적 배경, 정신적 성숙도 등 제반변수에 의해 청소년기는 달라질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민법과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을 19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경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이유가 이루어지면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만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 또는 제2의 반항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아직 주변인에 머물러 있는 특징적인 발달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신체·심리변화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발달은 점차 성인과 비슷해가지만 심리적 발달은 경험의 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을 스스로를 책임지기 어려운 연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 2. 청소년의 발달특성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분류하면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자아 발달, 정서 발달, 청소년의 문화 등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현대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청소년의 신체적 발육은 이전보다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생리적 과정과 사회화 과정 사이의 격차현상이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것만큼이나 청소년기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얻거나 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를 확보할 때까지로 대체로 광범위하게 규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시작을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다분히 생리적 차원에서 규정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기의 끝남은 결혼이나 취업 같은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사회화의 기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책임 있는 사회성원으로 등장하는 나이는 늦어지므로 자연히 청소년기는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생리적 특징은 한마디로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생리적 특성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것인데 비해 청소년기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16) 통계청(2006), 청소년통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적 특성은 성장발육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 조건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역할 변화와 연관된다. 청소년은 부모에 의존, 부모로부터의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과 반항사이를 왕래하며 아이로 취급하면 화를 내지만 반대로 어른 취급을 하면 불안해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청소년은 누구나 가족의 감독에서 벗어나 독립된 하나의 인격이 되려하는 심리적 작용과 자아정체감 확립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현대사회의 특성 중 청소년의 생활과 특히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가족제도와 교육제도이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장소가 가정과 학교로 분화되고, 또 어른들에게는 일의 장소가 가정과 직장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세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기능과 어른들의 일하는 장소가 가정에서 분화되어 나갔다는 사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농경사회에 비해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 신체 발달 측면 ;** 청소년기 중 초기단계인 사춘기에 들어서면 급격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져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국의 청소년지표에 따르면 신장과 체중의 변동이 남아의 경우에는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여아는 9세에서 11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신체적 발육 속도가 빨라지는데 사춘기(보통 2~3년 간 지속)가 끝난 후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앞서게 된다. 신체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해마다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속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춘기가 되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내분비선(endocrine glands)도 급격한 성장을 하여 성적 발육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사춘기가 되면 제2차 성징이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아의 경우 유방의 발육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음모가 자라기 시작하며, 겨드랑이의 체모와 초경(menarche)이 있게 된다. 초경 후 1년 반이 지나면 보통 배란이 생기는데 이후부터 임신도 가능해진다.

한편 남아의 경우 고환의 발육이 먼저 시작되고 음모가 자라며 몽정을 경험하고 그 다음 목소리 변화(변성기)와 체모가 나타난다. 사춘기 성장은 대체로 2년 동안

계속되며 난자와 정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되면 성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성적 성숙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여아는 지방질이 발달하여 몸의 선이 점점 곡선을 띠게 되고 전형적인 여성의 체형을 갖추게 되며, 남아의 경우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여 어깨가 벌어지고 역삼각형의 체격을 갖추게 된다.

사춘기의 신체적·성적 발육이 진행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형성해 간다. 이것을 신체상(body image)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갖는 자신의 신체상은 청소년들의 심리상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sup>17)</sup>

신체발달의 개인차로 인해 열등감을 가질 경우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올수 있고, 신체발달의 부조화에 의해 정서적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정보,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가족의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

**나. 인지 발달 측면 ;**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은 아동기 때와 질적으로 다르며 청소년기 동안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듯이 인지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인지(cognition)란 한마디로 정신 활동(mental life)을 의미하며,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능(intelligence)이란 개념과 혼용하여 많이 쓰인다.<sup>18)</sup>

인간의 정신능력은 유동성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성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으로 구분되며 유동성지능은 14~17세까지 절정에 이르렀다가 연령증가와 함께 쇠퇴하는 반면, 결정성지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결정성지능은 청소년기 동안 그 변동의 폭이 크며 이때의 변화 정도에 따라 성인기의 지적 능력이나 삶의 형태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기능·인지발달의 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발달단계별로 상이한 논리적 조작능력이 나타난다고 볼 때 청소년기가 되면 사고의 형식적 조작(formal operation)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아동기 사고와 구별하였다.

사고의 형식적 조작이란 첫째,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 현상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

6) 이종복외 5인(1998), 현대 청소년복지론

7)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적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하나하나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가설 연역적사고(hypothesis-deductive reasoning)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둘째, 명제적사고(propositional thinking)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형식적 조작은 평균적으로 11~12세가 되어야 가능해지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삶을 엮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사고의 형식적 조작이 가능해 지면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모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과학적 추리를 할 수 있으며 ‘사고(思考)에 대해 사고(思考)하는’ 초인지 능력(meta cognition)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자기 성찰(self-examination)을 하게 하는데, 청소년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고 뿌리에 관심을 가지며, 일기나 상상놀이 친구(imaginary playmate)와 같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적 사고능력은 청소년들을 불안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 즉 가능성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미래의 삶이나 닥쳐올 일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근심하고 여러 가지 공상에 빠져 혼란스럽고도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현실을 모두 부정하는 급진적 개혁 혹은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다. 이때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절망하며, 급기야 ‘삶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 특유의 사회인지적 특성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이 나타나게 되는데, Elkind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와 상상의 청중(imaginary audience)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9)</sup>

전자는 자신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세계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우정이나 사랑이 결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

19) 권이중(1983), 사회교육과 청소년 지도



후자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늘 타인의 관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즉 다른 사람들은 늘 나를 주시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상상의 청중 의식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탄다. 그러므로 상상의 청중의식이 너무 지나칠 경우 늘 남의 눈을 의식하므로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다. 자아 발달 측면 ;** 자아를 찾고 정체감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인으로서 성숙된 인격과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 발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자아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한다.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회의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게 되며, 이 탐색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알게 되는데, 자신의 가능성이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거나 자신의 한계가 너무 클 경우 절망하고 방황하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정체감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현재의 자기’를 잘 수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이라고 하였다.

아동기 때와는 달리 자신의 실체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며(실체적 자아 : actual self) 청소년들은 ‘이상적 자아(ideal self)’를 꿈꾸게 되고 이상적 자아를 향해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또 그것에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간에 거리가 너무 멀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체념과 포기를 하게 만든다. 또한 이상적 자아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거짓 자아(false self)’를 형성하게 된다.

거짓 자아란 현재의 자기 자신을 감추고, 이상적 자아를 마치 실제의 자신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거나,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성격의 인물을 몹시 갈망할 때 거짓 자아를 나타낼 수 있다.<sup>20)</sup>

---

20) 오치선(1999), 청소년 지도학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갖는데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비교적 안정되고 통합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닌 특성이나 존재에 대해 가치와 긍지를 느끼는 반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긍지를 느끼지 못하므로 심할 경우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자아 존중감은 주변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격려가 있을 때 증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신뢰나 애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낮아진다. 특히 청소년기 자아 존중감은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의 지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라. 정서 발달 측면 ;**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는 순수한 반면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성적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안, 인지와 자아의식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기존 세대에 대한 거부감 및 아동과 성인 사이의 역할 부재에서 오는 혼돈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분비선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발달을 이끄는 대표적인 것은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들 호르몬의 양은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전형적인 청소년기 정서를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① 청소년들은 순수하고 쉽게 동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감동을 잘 받으며, 노래가사에도 쉽게 눈물을 흘린다.
- ②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아동기에는 사건 중심이었으나 청소년기가 되면 대인관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갈등이라든가, 친구와의 문제 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청소년들의 정서를 대부분 지배한다.
- ③ 정서표현이 내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동기 정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마음속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형성된 정서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한번 형성된 친구나 대중스타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④ 청소년들의 정서는 정조(情操, sentiment)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조란 고도로 분화되고 승화된 정서표현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글이나 노래 혹은 그림 등 세련되고 지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⑤ 청소년기가 되면 신경질이 많아지고 조급해지며 잘 흥분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안에서 청소년들은 화를 잘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⑥ 청소년들이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며, 마음을 줄이고 얼굴을 잘 붉힌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이에 따른 긴장과 불안 및 좌절의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격적 성향을 띠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21)</sup>

**마. 청소년의 문화** ; 과거나 현재 모두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조역이었다. 청소년집단은 아동기와 달리 부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또래 집단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동년배 집단들이 서로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의 생활양식은 부모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는 이들의 아래관계나 이들이 보이는 하위 문화적 특성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부모세대들의 경험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명 현재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삶의 양식이나 태도는 이전세대와 구분된다. 공동체적인 삶의 문제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현실 속에서 재미있게 자신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은 정치, 사회에도 관심이 없다. 스포츠, 만화, 연예가 이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들은 부모세대의 노력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경험하였고, 또 한편으로 고급 소비문화를 누리는 집단이다. 이들의 또래관계는 이런 생활경험과 직접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먼저 외출했다 돌아오면 컴퓨터부터 켜고 전자우편이 왔나 먼저 확인하다. 물론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길거리에서 이야기 하며 걸어가는 장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개성화, 감각화, 자기표현 욕

21)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3), 청소년 복지론

구로 표현되는 이들 세대의 정체성은 삶의 양식에서는 왕성한 구매 욕구와 소비욕구로 나타난다. 서구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바로 이들이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청소년 또래 문화의 특성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상업적 문화 활동과 유행의 추종 속에서 자신의 개성적인 모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성향의 소비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 어느 세대에 비해서도 ‘소비’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 오랫동안 절약의 규범 속에 성장하면서 막상 돈을 벌어도 쓸 줄 모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이들에게는 소비에 대한 죄의식이 부재한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가 생산 중심주의에서 소비 중심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들은 8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영상매체의 확산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컬러TV와 비디오, 전자게임과 컴퓨터 등의 새로운 영상매체에 익숙해있다. 이는 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리성에 약한 대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고 싫은가?’에 그들의 기준이 있다. 청소년들을 컴퓨터 세대, 사이버 세대라고 일컫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컴퓨터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친구,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실** ;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과정을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노력한 결과 혁혁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잃은 것이 있다.

이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다. 특히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 관심 밖의 일로 여겨 옴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와 비행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적문란, 퇴폐, 향락문화, 물질만능주의, 청소년 비행과 일탈로 드러나고 있는 사회 병리현상의 원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은 경쟁의 승리를 최고의 가치 창출로 여기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되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현실은 청소년들의 이기주의, 무절제, 난폭화, 의타주의의 심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거의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색해 왔었다.

가정, 학교 및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청소년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장소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신적·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활동의 재창조를 위한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문제가 정적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세대 간 차이를 과거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다. 가부장의 권위 역시 많은 부분이 퇴화되어 부모와 자녀간의 역할과 지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의 자녀지도에 대한 기능 상실과 같은 외적 요인과 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엄청난 교육열, 심한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상당한 압박감, 좌절, 불안, 불만, 갈등 등을 경험하고 있다.

### 3. 직업훈련의 특성

#### 가.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구조가 변화되면서 기능 인력의 수요가 급등하면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1967년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공포 하는데 이르렀으며, 정부에서 산업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공포 시행하였고, 1995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어 1999년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등으로 23년간 운용되어오던 직업교육훈련의 무체가 폐지되어 민간훈련참여 확대로 민간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로 시행하게 되었다.

2004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되어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 산업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 개편 되었다.

직업훈련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는 않다. 일제시대 의 생산직 종사자의 기술교육에 해당하는 말로서 기능자 양성, 도제 양성, 견습생 제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sup>22)</sup> 해방 후 우리나라의 법률이 정비되던 53년도에 제정

22) 한국직업능력 개발원(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의 회고와 전망

된 근로기준법에서 “기능자 양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직업훈련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후 76년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년 12월)에서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직업훈련법 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종래의 개념을 계승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책방향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첫째,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둘째, 민간 자율성 확대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셋째, 공공훈련의 효율성제고 및 내실화를 추구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등을 포함한 우선선정직종훈련 2009년도 승인인원을 보면 12개분야 95개 훈련직종, 87개 기관 16,978명이 승인 되었다.<sup>23)</sup>

#### 나.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개요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인력이 부족하여 훈련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훈련적인 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직종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게 우대 지원하여 제조업체 등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고용보험법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및 시행령 제34조의 2(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4조(사업주 외의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훈련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관장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1960~1970년대 까지는 실업교육 또는 산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인력, 특히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어 왔다. 1980년대부터는 학교교육체제를 통한 직업교육의 개념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

23) 노동부분부(2009), 2009년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결과

성 이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학생 중심 직업교육과 근로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직업교육훈련으로 통칭하여 개념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목적과 담당 기관이 구분되어 있다. 직업교육은 산업교육진흥법과 기타 기업교육 관련법에 규정된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수준의 직업교육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을 포함한다. 직업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인력 육성방향과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훈련제도의 구분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정식 도입되었다. 정보화와 국제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되고, 직업훈련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9년 1월 1일자로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느냐에 따라 기준훈련과 기준 외 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과정은 훈련의 내용·대상자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으로 구분한다.

현행 제도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대상·목적 및 재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 취업훈련’, ‘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무직·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실업자취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생의 대상인 비진학 청소년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중심으로 하였다.

## 4. 위탁 교육훈련 기관

### 가. 위탁 직업과정 운영



(1). 위탁 교육의 근거 - 일반계 고교 위탁 직업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에 의한 제2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시행되었고, 교과목 단위 시간 기준에서 “고교 교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따라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예체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지도한다.”라고 명시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편제 및 과정상에 직업과정이 설치되었다. 이후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에 의하여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 표에서 직업과정의 교과목 및 단위 이수를 명시하여 교육과정상의 직업과정을 명문화하였다.<sup>24)</sup>

1990년 1월 10일 교육개혁으로 제시된 ‘고교교육체제개혁’에는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계고 수용능력 확대 조치와 함께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육성이 포함되어 운영, 이후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 방안(Ⅱ) 중 ‘신직업교육체제수립’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다양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운영되어 왔다. 직업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 및 산업학교,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원, 각종 사설학원 및 인정직업 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sup>25)</sup>

현재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은 문교부 고시 제 90-1호(’90. 1. 22) 『직업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

(2).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분야

<표 3>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 분야

위탁교육 훈련기관의 종류			교육훈련분야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원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훈련원 및 직업전문학교(노동부 지원) -직업·기술계학원 (도 교육청 수강료 지원 대상기관임)	-직업과정운영의 목적 달성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훈련기관이나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직업·기술계열 전 분야

24) 한국교육개발원(1992),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 운영 연구

25)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3). 위탁교육훈련기관 선정

(가). 공공교육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공고부설, 공공직업훈련원)을 우선 선정한다.

(나). 직업·기술계학원(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의 위탁은 공공교육훈련기관(산업정보학교, 공고부설, 공공직업훈련원)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코스를 우선 선정하여 위탁하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된 직업·기술계학원 중 교사의 자격, 시설, 교육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학원을 선정 위탁한다.

※ 참고 : 직업·기술계학원은 노동부 고시 제2002-30호 및 노동부 예규 제487호의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는 학원을 선정하되, 직업·기술계학원은 위탁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이 부실한 직업·기술계학원(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은 위탁교육의 해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탁교육훈련기관

- ① 교육청 산하 산업정보학교, 공고부설 직업과정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공공직업훈련원)
- ③ 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원(공공직업훈련원)
- ④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직업훈련원)
- ⑤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훈련원 및 직업전문학교
- ⑥ 직업·기술계학원(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규칙 별표1의 직업·기술계학원으로 노동부 고시 제2002-30호 및 노동부 예규 제487호의 규정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학원)
- ⑦ 사내 직업훈련원(사내 직훈)

나. 우선선정직종훈련 기관의 종류

훈련시설은 실시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 훈련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가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을 말하며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 수출전략 직종, 첨단 및 신수요 직종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직업훈련기관은 개인, 법인, 사업주단체 등이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기관을 말한다.

현재 무직·비진학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우선선정직종 훈련을 실시하는 공공직업전문학교, 민간직업전문학교, 및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와 사설기관으로 기술계 학원 등이 있다.

이들 직업교육훈련생들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기숙사 시설도 제공되며, 교육훈련 기간 중 군 입대가 연기된다. 또한 전체출석의 70%이상 출석시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거쳐 기능사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기능대학 우선 전형 입시자격을 부여받는 특전을 가진다.

(1). 공공직업전문학교 :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직업교육기관은 8개소이다. 가원 흥천군에 소재한 가원인력개발원,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경기인력개발원,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인천인력개발원,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충남인력개발원,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충북인력개발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인력개발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인력개발원,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전북인력개발원이 있다. 충남 지역에는 상공회의소 산하 충남인력개발원이 있으며 비진학 청소년들이 이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2). 사업주단체 직업전문학교 :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사업주단체 및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5개소이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전기공사협회부설기관과,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한국계계산업진흥회부설기관과, 충북 음성에 소재한 전문건설공제조합부설기관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향만연수언부설기관이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이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상계 직업전문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사업주 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 충남 병천에 소재한 기계공업진흥회 산하에 있는 병천 직업전문학교와 충북음성에 소재한 전문건설공제조합산하의 음성적업전문학교가 있다. 이곳들에서는 자체 수요 직종의 다 기능공 및 준 다 기능공을 양성한다.

(3). 민간직업전문학교 :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훈련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16개소이다.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중 대표적인 학교로는 호남직업전문학교가 있다. 실업자 취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 고용촉진훈련 등을 하고 있다.

(4). 개인직업전문학교 / 사설학원 : 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11개소이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신 직업전문학교,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직업전문학교, 대명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직업전문학교, 부산광역시에 부산 정보 직업전문학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문경직업전문학교,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동아기술직업전문학교,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최경희 패션디자인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다.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은 미용, 간호, 건축, 디자인, 자동차, 요리, 컴퓨터 등 다양하고 대부분 교육비가 유료지만,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과정인 경우 교육비가 무료이다.

#### 다. 직업훈련영역

비진학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계 / 기술 분야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등), 가스안전기술, 비파괴 검사, 정밀기계, 기계제도,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가공, 금형, 열관리, 항공정비기술, 피아노조율, 도배 등의 다양한 과정들이 학원의 전문성에 따라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다수는 자격증취득과 관련을 맺고 있다.

(2). 컴퓨터 / 통신 분야 : 자동화, 통신일반, 인터넷 등의 기본 시스템 운영체계를 교육하는 것과 아울러 컴퓨터그래픽, 웹 관리 등과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3). 자동차분야 : 자동차정비, 자동차판금,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증장비 등의 관련 강좌들이 있으며 과정을 이수하면 자동차 및 각종 차량제조업체, 자동차정비업체의 조립 및 정비부서, 운수회사 건설업체의 차량정비부서 등에 취업할 수 있다.

(4). 전기 / 전자분야 : 전기용접, 전자기기조립, 전자통신, 전기내선광사, 전기제어, 산업전자, 전자계산기, 시스템제어 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전기기기제조 및 설비업체, 전기공사업체,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5). 미용분야 : 미용분야는 크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미용사과정과 피부미용사 과정으로 나뉘어지고, 피부미용사는 피부관리사과정과 메이크업전문가과정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발 관리사 과정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6). 디자인 / 공예분야 : 패션디자인, 실내디자인, 한국의상디자인, 가구디자인, 편물, 자수, 꽃꽂이, 홈패션, 공예분야, 보석가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1년 과정의 기능사 교육을 받으면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7). 사진 분야 : 사진기술, 비디오촬영기술, 촬영실기, 암실실기, 조명실기, 광고사진, 사진편집, 보도사진, 사진코디네이션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대학의 사진학과로 진학을 하거나 전문사진가로 취업하기도 한다.

(8). 정보처리분야 : 컴퓨터 등 OA관련 장비를 이용 일반사무에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 문서의 작성, 보고, 전송, 보관업무와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용,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9). 요리 / 제과 : 한식·양식·일식조리사 자격증,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이외에도 소규모 음식 창업반, 펌백이바지음식 등 보다 전문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10). 방송 / 매체 / 출판 분야 : 출판인쇄, 취재편집, 방송제작, 애니메이션, 사진제판, 스크린 인쇄, 광고기획, 카피라이터, 광고영상제작, PD·플래너과정, 옥외광고전문가과정, 중견크리에이터 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방송인, 출판인, 광고인으로 입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3장.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문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생들의 고민과 개선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고, 문헌연구에서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론적인 면을 고찰하였으며 조사연구는 설문지 조사법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계 처리 하였다.

###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민간직업훈련기관인 (재)H직업전문학교 우선선정직종훈련 2009년 3월 2일 ~ 2010년 2월 24일까지 진행 중인 과정에 입학한 인문고 위탁생 20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율은 <표 4>과 같다.

<표 4>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내 용	대 상	백분율(%)
설문지 배부 수	202	100
설문지 회수 수	180	91.4

### 3. 조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진로지도에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직업전문학교 인문고 위탁생용 설문지 14문항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직업전문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생 설문지 주요내용

- 직업전문학교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경향: 3문항
- 직업전문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6문항
- 직업가치관 : 5문항
- 진로에 대한 인식 : 4문항
- 진로지도와 직업전문학교의 역할 : 4문항

## 제4장. 결과 분석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맞는 시기의 비진학 청소년이나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르고 심지어는 고민이나 불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이해 능력을 길러 자신의 개성 내지 특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도록 지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도 스스로의 개성을 파악하고 이를 신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막연한 고민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가지의 큰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직업전문학교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둘째,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셋째, 직업가치관과 넷째, 진로의식에 대한 인식 또한 다섯째, 진로지도와 직업전문학교의 역할

### (1) 직업전문학교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동기

(가) 진학동기 : 표5에 나타난바와 같이 직업전문학교로 진로를 결정한 이유는 “학업성적”이 43.33%, “적성 및 취미” 23.89%로 각각 분석되었으며, 학업성적으로 인한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 직업전문학교에서의 학습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5 진로 선택 동기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경제사정	16	8.89%
학업성적	78	43.33%
적성 및 취미	43	23.89%
담임선생님의 권유	13	7.22%
부모님의 권유	15	8.33%
친구나 선배의 권유	9	5.00%
기타	6	3.33%
총계	180	100%

(나) 진로 변경 시 진로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 표6에 나타난바와 같이 정보인식 여부에 관한 답변에서는 “전혀 모르고 지원했다” 49.44%로 나타났다. 표7에 나타

난바와 같이 진로 선택 시 영향에 대한 답변으로는 “스스로 결정” 46.11%가 각각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6 정보인식 여부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잘 알고 지원했다.	3	1.67%
어느 정도 알고 지원했다.	16	8.89%
별로 알지 못하고 지원했다.	72	40.00%
전혀 모르고 지원했다.	89	49.44%
총계	180	100%

표7 진로 선택 시 영향을 준 요인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학교선생님	58	32.22%
친구 및 선배	16	8.89%
부모님 및 가족 친지	18	10.00%
스스로 결정	83	46.11%
인터넷 교육방송이나 신문	5	2.78%
총계	180	100%

## (2) 직업전문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가) 직업전문학교 진학동기 : 표8에 나타난바와 같이 주변인에게 추천하겠는지에 대한 답변은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가 43.89%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반면 “적극적으로 반대 한다” 29.44% 결과로 보아 현재 직업학교교육에 대한 변화가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8 주변인에게 추천 여부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7	3.89%
소극적으로 권장한다.	11	6.11%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79	43.89%
권장하지 않는다.	30	16.67%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53	29.44%
총계	180	100%

(나) 현재의 최대고민 : 표9에 나타난바와 같이 현재 최대고민은 “진학문제” 44.44%, “경제문제” 32.22% 로 분석되는바 진학에 대한 고민과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9 현재 자신의 최대고민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진학문제	80	44.44%
가정문제	15	8.33%
이성문제	12	6.67%
친구(동성)문제	8	4.44%
경제문제	58	32.22%
기타	7	3.89%
총계	180	100%

(다)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여부 : 표10에 나타난바와 같이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잘 모르겠다.” 38.33%, “다르다.” 31.67%로 분석되어 이미 학교생활 때부터 진로지도 교육의 미흡함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이전인 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10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여부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일치한다.	21	11.67%
비슷하다.	33	18.33%
다르다.	57	31.67%
잘 모르겠다.	69	38.33%
총계	180	100%

(라)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 표11에 나타난바와 같이해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파악해 본 결과 “전공과목에 관심 있다.” 40.00%, “부전공 과목에 관심 있다.” 33.89%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공과목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부전공 또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1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매우 흥미롭다.	32	17.78%
전공과목에 관심 있다.	72	40.00%
부전공 과목에 관심 있다.	61	33.89%
관심이 없다.	15	8.33%
총계	180	100%

(마) 교육과정에 대한 느낌 : 표12에 나타난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해 느낀 점을 파악해 본 결과 “과목 특성에 따라 실습시간이 배정” 36.11%, “전공을 위한 과목이 적절히 배정” 30.00%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을 위한 현장 위주의 수업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2 교육과정에 대해 느낀 점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기능사자격 시험대비 배당시간의 조정 필요.	36	20.00%
전공을 위한 과목이 적절히 배정.	54	30.00%
과목 특성에 따라 실습시간이 배정.	65	36.11%
부전공 할 수 있는 과목 배정이 필요.	25	13.89%
총계	180	100%

(바) 직업전문학교 진학을 반대했던 이유 : 표13에 나타난바와 같이 직업 전문학교 진학을 반대했던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직업전문학교 이미지가 나빠서” 29.44%, “사회의 인지도가 낮아서” 25.56%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기존 나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다.

표13 진학을 반대했던 이유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장래성이 없어서	23	12.79%
사회의 인지도가 낮아서	46	25.56%
직업전문학교 이미지가 나빠서	53	29.44%
진학이 어려워서	28	15.56%
적성과 취미가 안 맞아서	17	9.44%
기타	13	7.22%
총계	180	100%

### (3) 직업가치관

(가) 장래 직업에 대한 생각여부 : 표14에 나타난바와 같이 장래 직업에 대한 생각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늘 생각한다.” 47.22%, “가끔 생각해본다.” 32.78%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민을 학교에서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4 장래 직업에 대해 생각여부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늘 생각한다.	85	47.22%
가끔 생각해본다.	59	32.78%
생각 해 본 적 없다.	28	15.56%
관심 없다.	8	4.44%
총계	180	100%

(나) 직업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표15에 나타난바와 같이 직업 선택 시 중요하

게 고려할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경제적인 보수 정도” 35.56%, “본인의 적성 및 흥미” 25.56%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업 선택 시 본인의 적성과 장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표15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본인의 적성 및 흥미	46	25.56%
장래의 발전 가능성	42	23.33%
경제적인 보수 정도	64	35.56%
사회적 명성과 인정정도	21	11.67%
사회와 국가의 기여도	7	3.89%
총계	180	100%

(다) 직업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표16에 나타난바와 같이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하고 싶은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힘들어도 보수만 높으면 선택하겠다.” 38.89%로 분석되었다. 이는 설문지 15번 문제와 유사한 답변으로 적성보다는 보수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직장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표16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 할 사항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힘든 직업은 안하겠다.	11	6.11%
힘들어도 적성에 맞으면 선택하겠다.	36	20.00%
힘들어도 보수만 높으면 선택하겠다.	70	38.89%
보수 적어도 근무시간이 적은 직업을 선택.	25	13.89%
근무환경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겠다.	38	21.11%
총계	180	100%

(라) 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부모가 원하는 직업 : 표17, 18에 나타난바와 같이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파악해 본 결과 “공무원” 20.00%, “회사원” 17.22%로 분석되었고 학생이 원하는 직업은 “자영업”21.11%, “서비스업”20.00%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의 진로지도가 부모에 의해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 없이 개인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표17 학생이 원하는 직업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기능직	16	8.89%
상업	6	3.33%
회사원	31	17.22%
공무원	36	20.00%
서비스업	28	15.56%
군인	3	1.67%
자영업	9	5.00%
기술인	17	9.44%
세무 관리직	2	1.11%
게임관련(프로 게이머, 게임 개발자)	23	12.78%
기타	9	5.00%
총계	180	100%

표18 부모가 원하는 직업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기능직	14	7.78%
상업	3	1.67%
회사원	25	13.89%
공무원	17	9.44%
서비스업	36	20.00%
군인	4	2.22%
자영업	38	21.11%
기술인	11	6.11%
세무 관리직	2	1.11%
게임관련(프로 게이머, 게임 개발자)	26	14.44%
기타	4	2.22%
총계	180	100%

#### (4) 진로인식에 대한 인지

(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 : 표19에 나타난바와 같이 학생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해 본 결과 “학벌” 49.44%, “기능, 기술” 27.78%로 분석되었다. 졸업 후 많은 수(143명 79.44%)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도 일부 학생(24명 13.33%)이 취업

후에 계속 교육을 원하고 있다. 직업학교 위탁생들이 대학진학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19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기능, 기술	50	27.78%
학벌	89	49.44%
배경	10	5.56%
경제적 여유	31	17.22%
기타	0	0%
총계	180	100%

(다) 원하는 상급학교교육 : 표20에 나타난바와 같이 학생이 원하는 상급학교교육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4년제 대학 졸업” 40.00%, “전문대졸업” 27.78%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므로 직업전문학교 위탁생은 취업과 진학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며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20 원하는 상급학교교육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현 직업전문학교 졸업	37	20.56%
전문대졸업	50	27.78%
4년제 대학 졸업	72	40.00%
대학원 졸업	12	6.67%
외국유학	9	5.00%
총계	180	100%

(라)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이유 : 표21에 나타난바와 같이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이유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 때문” 41.67%, “본인 능력문제” 30.00%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은 희망하나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진학은 힘들며 또한, 본인의 능력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1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이유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본인의 능력문제	54	30.00%
가정의 경제적 환경	5	2.78%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 때문	75	41.67%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46	25.56%
총계	180	100%

(마) 진학 원인 : 표22에 나타난바와 같이 진학을 하고 싶은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하기 때문에” 30.08%, “직업전문학교 졸업만으로는 보수와 대우가 나빠서” 27.07%로 분석되어 진학을 원하는 이유가 학문연구가 아닌 사회에서의 대우나 보수가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진학을 하고자 한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상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도록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또한 학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진로지도가 필요 하다.

표22 진학 하고 싶은 원인

내용	응답자수 (취업 후 진학 할 학생포함)	백분율
직업학교 졸업만으로는 부족해서	21	15.79%
직업학교 출신은 보수와 대우가 나빠서	36	27.07%
사회적인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에	40	30.08%
전공 분야를 더 배우고 싶어서	10	7.52%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26	19.54%
총계	133 (제외: 47명은 취업)	100%

### (5) 진로지도와 학교의 역할

(가) 진로지도는 누구에게 받았는지 여부 : 표23에 나타난바와 같이 대학진학·취업 여부는 누구와 상담 했나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스스로 결정” 42.78%, “부모님 및 가족 친지” 30.00%로 분석되었다.

이는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가족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전문 상담가를 확보해야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교과 시간을 이용한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표23 대학진학·취업 여부는 누구와 상담 했나 여부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본교 선생님	4	2.22%
직업전문학교 담임선생님	45	25.00%
부모님 및 가족 친지	54	30.00%
스스로 결정	77	42.78%
인터넷 교육방송이나 신문	0	0.00%
진로지도교사(전문 지도교사나 상담자)	0	0.00%
총계	180	100%

(나) 학교에서 진로지도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 표24에 나타난바와 같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정보 만족도를 파악해 본 결과 “매우 부족하다” 53.89%, “미흡하다” 27.78%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표24 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정보 만족도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충분히 제공해준다.	4	2.22%
만족한다.	29	16.11%
미흡하다	50	27.78%
매우 부족하다.	97	53.89%
총계	180	100%

(다) 학교에서의 제공되는 진로지도 : 표25에 나타난바와 같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지도도를 파악해 본 결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7.78%로 분석되었다.

앞의 표 24와 유사한 결과로 학교는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지도 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담임선생님도 상담자로서 진로에 관련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5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지도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수업 교과 시간을 이용한 진로지도	1	0.56%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지도	8	4.44%
담임선생님의 상담 중심의 진로지도	32	17.78%
진로지도 교사를 통한 진로지도	0	0.00%
부모님을 통한 진로지도	28	15.56%
인터넷이나 기타 자료를 통한 진로지도	7	3.89%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4	57.78%
총계	180	100%

(라)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법 : 표26에 나타난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법을 파악해 본 결과 “수업 교과 과목으로 수업시간을 배당하기” 37.78%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배당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개별 상담 및 교과 수업 시 집단 상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노력 하여야겠다.

표26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법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수업 교과 과목으로 수업시간을 배당하기	68	37.78%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지도	35	19.44%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	49	27.22%
학급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지도	28	15.56%
총계	180	100%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진로에 대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을 직업과정 위탁생들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모색하고자 광주광역시 권을 중심으로 광주시 소재 민간직업전문학교인 (재) H직업전문학교에 위탁 훈련 중에 있는 20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인식의 변화이다.

개화기를 거쳐 식민지 시대와 6.25사변 이후 농경사회에서 급격한 산업의 변화로 인해 고착화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한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만연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이전 또는 이상을 마치면 각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적으로 각 지역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여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재와 같은 현상을 완화 시켜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초·중·고의 학교와 직업학교에서도 초기 입학 단계부터 수료 후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시스템 구축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적극적 운영이 밀착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과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전공학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홍보로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전공학과를 선택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전문상담 교사의 다각적인 진로지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소속감 및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 학업 우수상, 개근상, 모범상 등 포상제도, 학예활동, 졸업 작품전, 학부모 참관일, 공개 수업 등을 실시하고 기숙사, 식당, 매점, 화장실 등의 복지시설의 수준을 높여야 위탁생들의 소속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당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자식들은 고생 시키지 않게 하기위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이로 인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조장되며, 각자의 개성은 무시하고 청소년들의 인격을 일정한 틀에 고정시키려는 관행을 버리고 좀 더 넓고 포괄인 생각으로 청소년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대화나 관심이 부족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탈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위탁생들의 건전한 사고 형성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의 인격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학교와의 불화, 부모님과과의 불화, 친구와의 불화로 자신의 인생이 구겨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문제나 난관을 스스로 헤쳐 나가려는 불굴의 의지가 더욱 더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다섯째, 직업훈련의 다각적인 변화가 요구 된다.

구시대적 주먹구구식 관행을 혁신하기위하여 위탁과정의 자체적인 평가와 아울러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업 인원의 규모의 적정 수준 편성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교육의 질적인 면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직업훈련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면 일반계 고교 위탁생의 교육성과를 극대화시킴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2),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생각여부」, 2000  
진로교육학회 1999  
이정근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한국교육개발원 「진로교육자료」, 정민사  
고용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이무근,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1999  
김순희,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지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경  
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용혁, 「상업계고교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김종철 (2000), 「기능의 교육」, 서울 배영사.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학교진로상담」  
이종복 외 5인(1998), 현대 청소년복지론.  
통계청(2006), 청소년통계.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권이중(1983), 사회교육과 청소년 지도.  
오치선(1999), 청소년 지도학.  
김충기 (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복지론.  
서울특별시교육청(2006), 2006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교재 진로교육 내실화·활성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 직업교육훈련 100년의 회고와 전망.  
노동부본부(2009), 2009년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결과.  
한국교육개발원(1992),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 운영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  
안.







- ① 본인의 적성 및 흥미
- ② 장래의 발전 가능성
- ③ 경제적인 보수 정도
- ④ 사회적 명성과 인정정도
- ⑤ 사회와 국가의 기여도

**12. 직업을 선택 할 때 가장 고려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힘든 직업은 안하겠다.
- ② 힘들어도 적성에 맞으면 선택하겠다.
- ③ 힘들어도 보수가 높으면 선택하겠다.
- ④ 보수 적어도 근무시간이 적은 직업을 선택.
- ⑤ 근무환경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겠다.

**13. 내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기능직
- ② 상업
- ③ 회사원
- ④ 공무원
- ⑤ 서비스업
- ⑥ 군인
- ⑦ 자영업
- ⑧ 기술인
- ⑨ 세무 관리직
- ⑩ 게임관련(프로게이머, 게임 개발자)
- ⑪ 기타( )

**14. 부모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기능직
- ② 상업
- ③ 회사원
- ④ 공무원
- ⑤ 서비스업
- ⑥ 군인
- ⑦ 자영업
- ⑧ 기술인
- ⑨ 세무 관리직
- ⑩ 게임관련(프로게이머, 게임 개발자)
- ⑪ 기타( )

**<< 진로에 대한 인식 >>**

**15.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기능기술
- ② 학벌
- ③ 배경
- ④ 경제적 여유
- ⑤ 기타 ( )

**16. 앞으로 어느 정도 상급학교교육을 원하고 있습니까?**

- ① 현 직업전문학교 졸업
- ② 전문대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 ⑤ 외국유학

**17. 만일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능력문제
- ② 가정의 경제적 환경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전기·전자·통신 교육전공	학번	20068271	과정	석사
성 명	한글 : 박 기철      한문 : 朴 基澈      영문 : Ki-Chul Park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973-1 삼성아파트 7동 602호				
연 락 처	PCS : 010-5393-5388		E-MAIL : ggureogi@nate.com		
논문제목	한글 : 직업전문학교 위탁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Course Map for the Entrusted Students in the Job Professional Institut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서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7월 10일

저작자 : 박 기 철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